

命門에 관한 文獻的 考察

* 申興默 · 金吉萱

A Study on Vital Gate

Heung-Mook Shin · Gil-Whon Kim

Department of Pathology, Oriental Medical College,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know the concept and function of Vital Gate.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Vital Gate is the original of life, which is essential to life.
2. A physiological function of Vital Gate controls the physiological activity of the whole body through Triple Heater.
3. It is said that a partial establishment of Vital Gate is the concept of Hwang Jeong(黃庭) as the central point of the body.
4. It is effective that a clinical application of Vital Gate uses on the basis of Zoagyuyeum(左歸飲) and Woogyuyeum(右歸陰).
5. Fire of the Vital Gate means a original activity of life-activity and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the fire of Pericardium as a substitute for King Fire.
6. It is said that to explain the essence of Vital Gate in relation of kidney is to say the generative function.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Vital Gate is understood as the control of physiological activity of the whole body as the original point of life-activity.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

I. 緒 論

命門이라는 말은 『內經』¹⁾에 처음으로 보이나, 『內經』에서 말한 命門은 실제 눈을 가리킨 것으로 지금의 命門의 의미는 없다.

命門學說은 『難經』에서 臟器概念으로 兩腎中 左는 腎, 右는 命門으로 神精所舍 藏精系胞 原氣所系라 하였다. 이후 命門에 대한 概念 部位 機能에 대한 연구가 시대와 의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오늘에까지 통일된 개념이 없이 논쟁이 되고 있다.

이에 張景岳²⁾은 「三焦包絡命門者 醫者之要領 藏府之大綱」이라 하여 命門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議論이 오랜 기간동안 정립이 되지않고 쟁론이 되어왔음을 밝혔다.

이러한 시점에서 現 臨床에 있어 命門에 대한 이해는 腎機能系와 연관하여 腎陽, 腎氣 및 生殖機能등의 개념에 귀속시켜 연구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³⁻⁶⁾ 또한 실험적 연구로는 命門을 내분비와 관련하여 뇌하수체, 부신피

질, 갑상선, 성선, 고환과 연계한 호르몬기능이 보고된 바 있다.⁷⁻¹²⁾ 그러나 본인¹³⁾은 腎機能系 및 내분비와 관련한 연구가 命門을 부분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생각하고 命門을 생명의 門戶로 眞陰과 眞陽을 포괄하는 생명활동의 元點으로 해석하여 命門動氣의 생리작용을 실험연구한 바 있다.

이렇듯 동의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命門의 개념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의해서 그 기능과 현상이 달리 파악될수 있으므로 命門의 개념을 정리하는 연구는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에 본인은 命門에 대한 개념의 정리 및 개념확대의 필요성을 느껴 『內經』이후 諸家들의 이론을 檢討한 바, 그 지견을 보고 하는 바이다.

II. 本論 및 考察

1. 歷代 醫家들의 命門論

(1) 內經時代

- 1) 素問·陰陽離合論, 「太陽根下至陰 結于命門」, 靈樞·根結篇, 衛氣篇; 「命門者目也」
- 2) 類經圖翼, p.433.
- 3) 中醫學基礎概論 第一分冊, p.83.
- 4) 實用中醫基礎學, p.91.
- 5) 臟象概說, p.52.
- 6) 中醫基礎理論, p.54.
- 7) 金榮陸等, 右歸飲이 Hydrocortisone 投與로 誘發된 家兔副腎皮質機能低下에 미치는 影響, 東醫病理學會誌, 1989, 4 : 142~156.
- 8) 李炳如, 補腎藥對下丘腦-垂體-性腺軸功能影響, 中醫雜誌, 1984, 25(7) : 63~65.
- 9) 李鎔泰, 命門 三焦에 대한 實驗的 研究 -ACTH 및 ALDOSTERONE 分泌에 미치는 肉從蓉 附子의 影響-, 東醫生理學會誌, 1989, 4(1) : 29~41.
- 10) 沈自尹, 「腎陽虛」證의 下丘腦-垂體-甲狀腺軸初歩觀察, 上海中醫藥雜誌, 1982, (2) : 42.
- 11) 沈自尹等, 補腎藥改善老年腎上腺皮質功能的臨床與實驗研究, 中西醫結合雜誌, 1989, 9(9) : 518~521.
- 12) 陳家倫等, 助陽中藥對正常雄性大鼠腎上腺皮質舉丸及甲狀腺激素濃度的影響, 中西醫結合雜誌, 1989, 9(12) : 737~738.
- 13) 陳名道等, 助陽中藥對正常雄性大鼠甲狀腺激素代謝的影響及進退法用藥的探索, 中西醫結合雜誌, 1989, 9(2) : 93~94.
- 14) 申興默, 命門動氣의 生理作用에 對한 實驗的 研究, 東國大學教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1.

『內經』에서 命門은 目を 치칭하며 구체적으로 睛明穴을 말한다. 따라서 內經에서 말한 命門은 지금의 命門學說과는 전혀 相異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劉河間¹⁵⁾이 小心을 命門이라 한 후, 明·清代의 趙獻可, 徐靈胎등도 『素問·刺禁論』의 『七節之旁 中有小心』의 小心은 命門을 말한 것이라 하여 內經에서 이미 命門이 小心으로 언급되었음을 論하였으나 志心^{16,17)} 心包絡¹⁸⁾등으로도 言及되고 있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難經時代

命門은 「難經」에서 左腎을 腎, 右腎을 命門이라 定義하여 ‘左腎右命門說’이 야기되었고, 命門은 腎間動氣로 그 작용은 神精所舍 原氣所繫 藏精 繫胞 呼吸之門 其氣與腎通으로 言及하여, 정신활동을 주지하며 生命활동의 원동력으로서 五臟六腑와 十二經脈의 根本이 되고 성기능과 생식계통에 關係함을 說明하였다. 또한 성기능과 생식계통의 作用이 腎機能과 有關함을 밝혔다.¹⁹⁾

(3) 隋·宋代

隋代 楊上善은 「難經」의 기초위에서 命門의 作用을 腎間動氣²⁰⁾로 說明하였다. 즉 命門은 腎間動氣로 五臟六腑, 十二經脈 및 性命의 根本이 된다 하였다. 이후 宋代 『聖惠方』에서 命門은 腎과 함께 精神所舍, 原氣所繫라 하여 命門기능과 腎의 밀접한 關係를 밝혔는데, 이는 難經의 命門氣와 腎氣가 相通한

다는 說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4) 金元時代

『難經』에서는 右腎이 命門으로 神精所舍, 原氣所系를 說明했을 뿐이지 命門이 相火라는 說과 左右水火를 나누지는 않았다.

金元代에 劉河間이 命門을 相火와 결부시켜 說明하였으나, 左水右火의 觀點에서 右腎의 陽水를 命門相火의 개념으로 보아 『難經』의 觀點과 동일 하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命門을 手厥陰包絡의 臟이라 하여 개념에서 일치되지 않은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命門을 小心이라 하여 命門과 小心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

張元素은 命門을 相火의 原으로 보고 이 命門相火는 相火의 用인 三焦에 依하여 五臟六腑, 營衛經絡, 內外·上下·左右之氣를 다스려 受納, 消化, 排泄등의 인체 전반적 대사를 關係 한다 하였다. 또한 命門이 相火라 할때의 相火는 腎中火가 아니며 包絡相火로서 上中下의 五臟, 六腑, 營衛等 元氣之火로 正常生理活動을 가리키고, 相火는 肝腎의 火와는 부동한데 이는 肝火가 上升하면 腎火가 上浮하는 것은 病態에 屬하고 命門相火는 마땅히 元氣之火를 말한다 하였다.

李東垣도 兩腎中 右腎이 命門이라 하였고 命門을 相火의 作用으로 說明하였으며, 命門은 一名 胞 또는 赤宮, 丹田이라고도 하며 藏精施化 繫胞有孕하고 生化之源이라 하여 命門을 生식기능과 關係하여 生命의 起源論,

15) 素問玄機原病式, p.165. 「命門者 小心也」

16) 針灸甲乙經校釋 上册, p.693.

17) 黃帝內經太素, p.253.

18) 赤水玄珠, p.1183.

19) 難經, 8, 36, 39難

20) 黃帝內經太素, p.135.

21) 歷代中醫學家評析, p.75, 11.

생명의 主宰論으로 설명하였다²²⁾. 또한 元氣는 五臟六腑의 根本이 됨을 설명하였고, 病理的으로 相火는 陰火인 腎中伏火라 하여 相火는 인체의 정상기능을 대표하나 過旺하면 元氣의 賊이 된다 하였다²³⁾.

滑壽는 命門을 腎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腎은 비록 ‘左爲腎 右爲命門’으로 左腎右命門의 區分이 있지만 그 氣는 相通하여 實은 하나다고 하였다. 命門과 相火의 관계를 論하지 않아 金元醫家中 비교적 독특한 견해를 제시 하였다. 그 기능은 藏精繫胞로 五臟六腑의 精을 藏하고 受胎에 관여하며 腎間動氣는 人的 生命과 十二經의 根本이 된다 하였다.

命門相火說은 劉河間이 唱導하여 張元素 李東垣이 이를 계승하였고, 張景岳 趙獻可등이 命門相火*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劉河間의 命門相火說은 右腎火의 개념에 불과하며 張元素 李東垣이 論한 命門相火說은 진일보하여 元氣之火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이후 朱丹溪는 相火가 天과 人에 있어서 ‘生氣之原’이 됨을 「天非此火不能生物 人非此火不能有生」라 하였고 人體에 있어서 五臟六腑와 十二經脈의 根本이 되고 呼吸의 門, 三焦의 原으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또한 病理的으로 相火는 元氣의 賊으로 肝腎의 陰虛火旺뿐만 아니라 五臟六氣의 火도 포괄한다 하였다.

이상에서 難經이후 金元代까지 命門은 難經의 理論을 근거로 인체 생리활동의 根本이

되는 ‘生氣之原’ 즉 元氣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難經에서는 이를 腎間動氣로 인식하였고 金元代에는 相火와 결부시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腎間動氣는 생명활동의 원동력으로서 정신활동을 주지하며 五臟六腑와 十二經脈의 根本이 되고 성기능과 생식계에 관여한다. 정신활동은 五臟과 관련하여 五神(神, 魂, 魄, 意, 志)으로 臟腑와 상관성으로 볼 때 命門은 臟腑의 생리활동을 주관하고 그 생리활동의 原動力으로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相火는 人體의 정상기능을 대표하는 元氣之火로 모든 생물의 특징인 ‘動’이 相火기능의 중심으로 動은 火에 屬하여 相火는 인체 생명활동에 있어서 推動작용의 源으로 행사함을 알 수 있다.

(5) 明 代

明代의 醫家들은 『難經』 및 宋·金元代 醫家들의 이론을 기초하여 命門을 생명활동의 原點인 一身의 太極에 비유하였고, 卦象으로는 坎卦(☵)로 眞陰과 眞陽을 포괄하는 陰陽(水火)之宅이 된다 하여 체계적이고 완전한 命門學說을 형성하여 後世의 醫家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虞博은 兩腎을 命門이라 하였고 命門은 五臟의 根源으로 性命의 所關이 되며 兩腎之間에 命門穴을 설정하고 開闔의 象으로 動하면 生火하고 靜하면 涵水한다²⁴⁾하여 命門水火의 작용을 설명 하였는데, 이는 장부

22) 東垣十種醫書, p.244.

23) 金元醫學, pp.25~26.

24) 歷代中醫學家評析, p.142.

* 命門相火: 命門을 水火之宅으로 볼 때 命門火(眞陽)와 命門水(眞陰)의 작용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命門相火는 命門火의 작용을 말한다.

생리기능의 통제조절로 볼 수 있다.

李梴²⁵⁾은 命門을 右腎 및 心包로 인식 하였는데 이는 命門이 心腎水火의 既濟를 주관함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李時珍²⁶⁾은 命門의 實體는 脂도 膜도 아니며 白膜이 이를 싸고 있는데, 脊椎 第7節의 兩腎중앙 즉 『內經』에서 말하는 「七節之旁中有小心」이 命門이라 하였다. 이는 天을 대행하여 行事하는 故로 小心이라 한다 하였다. 그 작용을 命門은 藏精系胞之物로 아래로는 腎과 通하고 위로는 心, 肺 및 腦와 貫通하여 生命의 源이며 相火를 주관하고 精氣의 府가 되어 生命이 이로부터 나온다 하였다.

孫一圭²⁷⁾는 命門을 腎間動氣로 설명하였다. 動氣는 一點眞氣를 내포한 生의 本體이며 끊임없는 생성변화의 기틀로서 原氣라고도稱한다. 그 작용은 造化의 樞紐, 陰陽의 根蒂인 先天의 太極이 되며 五行과 五臟이 이로부터 생성되어 呼吸, 五臟六腑, 十二經脈의 根本이며 生命의 本始라 하여 命門의 生氣作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趙獻可²⁸⁾는 命門을 一身의 太極에 비유하면서 心보다 상위의 개념인 性命之門으로 칭하고 人身의 主는 心이 아니고 命門을 人身의 ‘君主’로 인식하였다. 또한 右腎命門을 부정하고 命門은 兩腎之間 一寸五分에 위치하여 一身의 中央이 되며 一陽이 二陰之中에 陷入한 象(☵)으로 命門의 작용을 眞水와 相火로 설명하였다. 즉 相火는 先天無形의 火로 後天有形의 心火와는 같지 않으며 眞水(眞陰)는

先天無形의 水로 後天有形의 水와는 다르며 相火를 따라 全身을 滋養한다. 그는 命門이 十二經의 主로 腎의 作強과 伎巧, 膀胱의 水液代謝, 三焦의 氣化, 脾胃의 腐熟水谷, 肝膽의 謀慮決斷, 大·小腸의 傳導와 受盛, 心의 接應萬事등의 기능은 모두 命門의 작용에 依한다 하였다.

한편 命門의 水火는 서로 分離될수 없으므로 水火相濟를 病理와 치료에 있어서 火가 有餘한 것은 眞水의 부족으로 水를 補하고, 火의 不足은 眞水가 有餘한 것으로 水를 瀉하여서는 안되며 火를 補해야 된다 하였다. 張景岳^{29,30)}은 命門을 太極이 兩儀를 生하는 것에 비유, 命門의 생리작용을 水와 火의 兩方面으로 관찰하여 ‘水火之宅’이라 하였다. 命門之火는 元氣(元陽), 命門之水는 元精(元陰)으로 이는 十二臟의 化源이 되어 臟腑의 생리기능이 命門水火의 작용으로 발현된다. 즉 心의 君主以明, 肺의 治節, 脾胃의 倉廩之富, 肝膽의 謀慮, 膀胱의 三焦氣化, 大·小腸의 傳導등의 작용이 모두 命門의 작용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命門의 生氣는 臟腑, 顏色, 聲音, 脈息, 七竅, 四肢, 二便등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이 生氣는 形體의 神氣를 판단하여 알 수 있다.

또한 命門과 脾胃가 모두 五臟六腑의 根本이되나 脾胃는 後天之氣가 되고, 命門은 先天之氣라 하여 命門이 臟腑精氣의 근원임을 밝혔다.

한편 命門을 ‘眞陰之府’라 하여 命門이

25) 醫學入門, pp.361~362. 「命門下寄腎右」注:命門即右腎 寄寄者 命門非正臟 三焦非正腑也……乃是精氣所泄 之之道也 若女子則子戶命門也. 「上爲心包」注:心包即命門 其經手厥陰 其腑三焦.

26) 本草綱目, p.1033.

때 命門火(眞陽)와 命門水(眞陰)의 작용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命門

27) 赤水玄珠全集, pp.1183~1185.

28) 醫貫, pp.4~5.

29) 類經圖翼, p.439, 443, 446.

30) 景岳全書 上卷, pp.55~58.

생명의 가장 기초적인 물질인 精을 藏하는 '精室'³¹⁾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眞陰은 능히 化氣하고 氣는 陽이므로 命門중에는 水火가 존재한다. 命門火는 眞陰인 水中에서 生한 陰中之火로 一身의 生化之源인 元氣이며 「命門之氣陽爲主」라 하여 命門火의 작용을 중시하였다. 즉 命門은 陰을 바탕으로 한 水火의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故로 眞陰과 眞陽之氣가 生命을 發生 하여 형성시키는 根源이 되며³²⁾ 眞陰과 眞陽은 命門의 水火이므로 命門을 '水火之府' 或은 '陰陽之宅'이라 하였다.

明代의 學者들은 易經의 哲學思想과 陰陽論에 근거하여 命門을 人身의 太極으로 상정하였다. 命門은 兩腎의 中間에 위치하며 一陽이 二陰中에 陷入한 「坎中之陽」의 象(☵)이라 하여 金元代의 命門相火說에서 進一步하여 命門火의 개념에 水의 개념을 부가시켜 陽氣의 根本인 「元陽之宅」일 뿐 아니라 藏精의 「眞陰之府」로 命門의 眞陰과 眞陽은 先天의 水火之氣로 生命활동에 있어서 生氣의 根源이 됨을 강조하였다. 고로 命門을 '水火之府', '陰陽之宅'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命門火의 作用을 강조하여 命門相火는 人體의 生化過程 즉 臟腑經絡의 功能발휘, 水穀의 運化, 氣血, 津液의 輸布와 轉化등의 動力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³³⁾.

(6) 清 代

李中梓³⁴⁾는 命門이 左右兩腎中間에 위치

하여 一陽이 二陰中에 處한 坎卦(☵)의 象이라 하였다.

陳士鐸³⁵⁾은 心의 神明, 肝의 謀慮, 膽의 決斷, 胃의 受納, 脾의 轉輸, 肺의 治節, 大腸의 傳導, 小腸의 布化, 腎의 作強, 三焦의 決瀆, 膀胱의 收藏等の 機能은 모두 命門火의 溫養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命門은 臟腑기능의 動力으로서 生命을 維持하는 源泉이 된다 하겠다. 한편 命門火는 先天之火로 水中에 居하여 水가 生하는 것이며, 水가 克하는 有形之火와는 구별하였다.

徐靈胎³⁶⁾는 命門을 生氣로 인식하였다. 命門은 水中之火로 실제의 위치는 兩腎의 中間 즉 經에서 말한 七節之旁中에 있는 小心이지만, 診法으로 말하면 左는 腎, 右는 命門이 되므로 右尺으로 相火를 診斷하고 左尺으로 腎水를 診斷한다 하여 위치와 診斷에 있어서 상이한 기술을 하였다.

또한 命門과 脾胃가 모두 五臟六腑의 本이 되나 命門은 生化之原으로서 元氣의 根이고 眞火의 宅으로서 先天의 氣이고, 脾胃는 灌注의 本으로 後天의 氣가되어 命門이 脾胃의 母가 되며 五臟의 陰陽氣도 命門元氣에 그 기능이 발휘된다 하였다.

命門의 火候(生氣)는 三焦를 通하여 나타나는데 下焦의 火候는 夭壽生育 勇怯精血로, 中焦의 火候는 胃中の 陽氣작용으로, 上焦의 火候는 聲色動靜 智愚賢으로 나타난다하여 命門은 元氣의 根이며 三焦는 元氣의 別使임을 밝혔다. 또한 命門火候를 잘 살피는 것이

31) 類經圖翼, p.446.

32) 類經圖翼, p.440. 「神由氣化 而氣本乎天 所以發生吾身者 即眞陽之氣也 形以精成 而精生于氣 所以成立吾身者 即眞陰之氣也」

33) 中國醫學史, p.241.

34) 醫宗必讀, p.26.

35) 石室秘錄, p.230.

36) 徐靈胎醫書全集 券四 雜病源, pp.151~154.

活人の 으뜸가는 大義라 하였다.

命門의 ‘先天眞一之氣’는 生化之氣로 臟腑 생리기능의 根本이 되나 後天胃氣의 滋養을 받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元氣의 存亡盛衰는 生死存亡의 關鍵이 된다 하였다. 그러므로 元氣의 반영이며 생명활동의 주요현상인 神氣는 生理現象과 病理變化를 외부로 표출하므로 望, 聞, 問, 切의 四診으로 元氣의 盛衰를 진단할 수 있다.³⁷⁾

何夢瑤³⁸⁾도 命門이 七節之陷中 즉 兩腎中間에 위치한 小心이라 하였다. 命門火를 先天元陽이라 하고 腎水를 先天의 元陰이라 하여 先天水火를 생명의 근본이라 하였는데, 先天水火는 後天氣血의 原이라 하였다. 즉 命門을 先天火의 根源으로 보았다.

錢一桂³⁹⁾는 命門을 兩腎之間에 위치한 坎卦의 象이라 하였으며, 右側은 火의 位이므로 越人이 右腎을 命門이라 하였음을 밝혔다.

唐容川⁴⁰⁾은 命門이 兩腎中의 一條 油膜으로 三焦의 原이 되며 肝氣, 膽氣, 心, 心包, 小腸, 大腸, 膀胱, 血室, 氣海, 皮, 肉, 奏理등과 연계된다 하였다. 또 命門火의 작용을 중시하여 命門火는 腎中에 내포한 陽氣가 化生한 元氣로 呼吸과 衛氣의 작용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清代의 命門論은 明代의 命門學說을 계승하여 命門은 兩腎中間에 위치하는 생명의 根本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腎水中의 火를 命門火(相火)라 하여 命門火의 작용을 중시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內經』에는 命門의 뜻이 없으며, 越人이 兩腎가운데 左側은 腎, 右側은

命門이라 설정한 이후, 右腎命門說, 兩腎總命門說, 兩腎之間命門說등의 異論대두 되었다. 命門의 작용은 『難經』에서 ‘腎間動氣’로 神精所舍 元氣所系가 되며 藏精繫胞의 작용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命門이 相火라는 說과 左右水火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宋代에도 命門相火說은 없었으며 『難經』의 二者之氣相通의 영향을 받아 命門은 腎과 함께 精神所舍 原氣所繫라 하였다.

金元代에 劉河間이 命門相火說을 제창한 이후 李東垣 朱丹溪등이 相火에 대하여 論하였고, 相火를 ‘生氣之原’인 생명의 근본으로 인식하였다. 이 命門相火는 明代의 張景岳 趙獻可에 이르러 體系化 되었다.

明代에는 命門을 元陰(元精)과 元陽(元氣)으로 인식하였다. 元陰과 元陽은 臟腑經絡活動의 근본이며 생명의 根原임을 설명하였다.

즉 命門의 작용은 時代와 醫家에 따라 腎間動氣 相火, 元氣(元精포괄)등으로 인식하였으나 모두 『難經』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命門이 생명활동의 原動力임을 論述하였다.

2. 命門의 형성과 발전

命門이란 말은 『內經』에 최초로 記載되어 있는데, 이는 눈을 말하는 것으로 王水은 「精을 갈무리하고 빛을 비추는 곳」⁴¹⁾이라 하여 눈의 기능으로 설명하였고, 馬蒔는 구체적으로 足太陽經의 睛明穴을 지칭한다 하여 지금의 命門說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命門學說은 『難經』에서 起源하여 隋代의 楊上善과 宋.金元時代를 거쳐 明清代

37) 中醫歷代各家學說, p.284.

38) 醫編, p.6.

39) 醫略, p.48.

40) 血證論, p.12.

41) 中國醫藥匯海 9券, pp.138~139. 「藏精光照之所」

에 비교적 체계화된 命門學說이 형성되어 발전하여 왔다.

1) 命門의 概念

命門은 生化之源이 되는 生命의 門으로 옛 醫家들은 生命現象의 起源이 되는 元點을 命門으로 想定하였다⁴²⁾. 그러므로 命門은 生命活動의 元點으로 一身의 太極에 비유되고, 卦象으로는 一陽이 二陰之中에 陷入한 坎卦(☵)로 水火의 기능을 내포한 陰陽之宅이 된다. 즉 生命활동의 주체자인 命門은 元陰과 元陽을 포괄하는 動氣이며 元陰은 命門水 元陽은 命門火의 작용으로 표현된다. 命門動氣는 生命활동의 원동력으로서 生氣 또는 元氣라고도 한다.

2) 命門의 부위

『內經』에서는 腎을 左右로 구분하지 않았고, 右腎이 命門이라는 예기도 없다. 『難經』에서 左腎右命門說이 야기된 이후 時代와 의가에 따라 논쟁이 된 부위에 관한 說은 다음과 같다.

(1) 右腎命門說

右腎을 命門으로 본 것으로 『難經』에서 右腎을 命門이라 定義하여 '右腎命門說'이 형성된 이후, 晉의 王叔和, 宋의 陳無擇 戴用和, 金元대의 劉完素 李東垣, 滑壽, 明대의 李挺 등이 이 說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右腎을 命門이라 한 것은 腎中 陽氣의 生殖 生化作用을 命門의 作用中 一面만을 관찰하여 命門火의 生氣作用과 동일시한 것으로 사료된다.

(2) 兩腎命門說

兩腎을 모두 命門이라 한 것으로 明代의 虞搏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兩腎 사이에 命門穴을 설정하여 命門穴이 動하면 火를 生하고

靜하면 水를 涵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兩腎을 命門이라 한 것은 命門水火의 작용을 腎中 水火의 작용으로 論하였다 하겠다.

(3) 命門在兩腎之間說

命門이 兩腎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으로 明代의 薛立齋, 李時珍, 孫一圭, 趙獻可, 張景岳, 清代의 徐靈胎, 李中梓, 何夢瑤, 錢一桂 등이 주장하였다.

明·清代의 많은 의가들은 兩腎이 水의 臟이므로 『難經』의 右腎命門說을 부정하고 命門은 兩腎의 中間에 위치한다 하였다. 즉 命門의 부위는 左右의 兩腎으로 부터 一寸五分에 위치하며 구체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세어 脊椎 14椎 함중이 되고, 아래서 위로 세면 7椎 즉 臍의 對面이 된다 하였다. 특히 人體의 중심점이 됨을 人身의 太極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命門의 부위는 『難經』이후 腎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腎을 중심으로 설명한 命門의 부위를 분석하면, 腎은 水臟이나 左水右火의 觀點으로 陰陽을 나누면 左腎은 水에 屬하고 右腎은 火에 屬한다. 右腎을 命門으로 인식 한 것은 腎火와 命門火를 동일시한 것이고, 兩腎之間을 命門으로 인식 한 것은 易의 坎卦(☵)중 陽爻를 중심으로 一陽이 二陰중에 陷入해 있는 것을 설명한 것이며, 兩腎命門說은 坎卦(☵)중 陰爻를 중심으로 二陰이 一陽을 싸고 있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두 命門火의 작용을 腎火와 동일시한 결과로 腎은 비록 水臟이지만 水中之火를 命門으로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兩腎을 水火의 차이로 左腎을 腎水, 右腎을 命門이라 한 것은 命門火(相火)의 관점만 論한 것일 뿐이며, 더우기 先天水火의

42) 類經圖翼, p.443. 「所謂命門者先天之生我者 由此而受 後天之我生者 由此而載也」

개념을 내포한 命門은 생명활동의 元點으로서 腎火(腎陽)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命門의 설정은 身體의 중심점인 兩腎之間 즉 黃庭⁴³⁾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

3) 生理作用

命門의 부위는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그 작용에 있어서는 生化之原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비교적 일치한다.

즉 命門은 元陰과 元陽을 포괄하는 生化之源으로서 身體全般의 代謝作用에 있어서 精神機能은 물론 臟腑經絡의 기능발휘, 呼吸, 水穀의 運化, 氣血 津液의 輸布와 轉化등의 根本이 되는 性命의 門으로 人身의 '眞主'의 작용으로 개괄할 수 있다.

(1) 動氣의 작용

生命의 근본이며 五臟六腑-十二經脈의 기능을 조절한다. 즉 心의 神明, 肺의 治節, 肝膽의 謀慮決斷, 脾胃의 腐熟水谷, 腎의 作強과 伎巧, 膀胱의 水液代謝, 三焦의 氣化, 大, 小腸의 傳導와 受盛등의 기능발휘는 動氣가 원동력이 된다.

(2) 相火의 작용

相火는 元氣之火이며 生化之原으로서 생명활동에 있어서 推動作用의 根源이 된다. 즉 腎陽을 포함하는 元氣의 根本이며 인체 熱生産의 發源地로 三焦의 氣化를 돕고, 脾胃를 溫暖케 하여 飲食의 소화작용을 돕는다. 또한 인체의 성기능 및 생식계통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호흡계통과 納氣작용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3) 精神작용

命門은 神精所舍로 정신활동에 관여한다.

(4) 生殖과 임신에 관여한다.

命門은 藏精하여 '精室'이 되고 系胞하여 임신에 관여하며 이는 腎機能과 상호 유관하다.

(5) 元精과 元氣의 작용

元精과 元氣는 先天無形의 水火로 後天有形의 氣血을 化生하며 생명을 탄생하여 형성시키는 근원이 된다.

3. 命門과 相火

相火의 문제는 일찌기 『內經』에서 「君火以明 相火以位」⁴⁴⁾라 하였으나 君火는 第二之氣인 少陰君火를 말하고, 相火는 第三之氣인 少陽相火로 이는 五運六氣로論한 것이며 君火와 相火는 비록 二火이지만 하나의 火가 된다.

『難經』에서는 右腎을 命門이라 定義하였으나 命門과 相火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으며 命門相火說은 劉河間이 唱導하여 張元素, 李東垣이 이를 따랐으며, 朱丹溪가 발전시켜 相火는 天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生陽之氣 혹은 六氣之火를 가리키고 人에 있어서는 '生氣之原'의 뜻을 내포하여 臟腑와 經脈의 根本이며 呼吸의 門, 三焦의 原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또한 病理적으로 相火는 元氣의 賊으로 肝腎의 陰虛火王뿐만 아니라 五臟六氣의 火도 포괄한다 하였다.⁴⁵⁾ 이러한 元氣之火로서의 相火는 明代에 張景岳, 趙獻可 등에 의하여 命門相火說이 체계화 되었다.

命門相火는 元氣之火로 人體의 정상기능을 대표하며 모든 생물의 특징인 '動'이 相火

43) 醫貫, p.4. 「命門無形之火 在兩腎有形之中 爲黃庭」大漢和辭典：黃者 中央之色也 庭者四方之中也 指膈中心中 脾中 故曰黃庭. 여기서는 一身의 中心이 됨을 말함.

44) 天元紀大論

45) 金元醫學, pp.337~338.

기능의 중심으로 動은 火에 屬하여 인체 생명활동에 있어서 推動작용의 源으로 행사함을 알 수 있다. 즉 命門相火는 精中之氣로 이는 水와 결합하여 人體陰陽代謝의 水火既濟를 형성하고 人體를 溫暖케 하여 대사를 추진시키는 動氣(生氣)의 작용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

비록 劉河間은⁴⁶⁾ 包絡相火를 命門이라 稱하였으나 包絡相火는 心君의 宰相으로서 君命을 행사하며 手少陽三焦와 表裏가 된다. 그러므로 生氣之源으로서의 命門相火와 包絡相火는 분명히 구분해서 인식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生氣之源으로서의 命門相火는 命門眞水와 相配되어 생명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元陽을 말하며, 君命을 代行하는 包絡相火는 心の 君火와 相配되는 火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腎이 相火가 된다함은 右腎이 火에 屬함을 말한 것이라 하였으며 右腎命門을 包絡相火라 하였는데 이것은 包絡相火의 根源이 腎陽에 있음을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에서 包絡相火는 心の 君火를 代行하는 君과 宰相의 관계에서 火를 말하며, 命門相火는 인체의 정상기능을 대표하는 元氣之火의 개념이라 하겠다.

4. 命門과 其他臟腑와의 상관성

1) 命門과 小心

(1) 命門과 小心의 문제

命門이 小心이라는 문제는 『素問·刺禁論』의 「七節之旁 中有小心」에 대한 注家들의 見解차이에서 비롯된다.

劉河間이 처음으로 命門을 小心이라 하였으나 이는 右腎을 말한 것이며 小心은 相火를 다스리고, 이 相火는 君命을 代行하는 까닭으로 命門이라 稱하여 心은 君火가 되고 腎은 相火가 되는데 이는 右腎이 水가 아니라 火에 屬하을 말한 것이라 하였다.⁴⁷⁾ 吳崑⁴⁸⁾도 역시 右腎을 命門이라 하였으나 命門相火는 心君을 代行하는 小心이라 하여 劉와 吳는 右腎의 相火가 君火를 代行하는 小心이라 하였으나 心은 君主의 官으로 君主를 대행하는 宰相은 당연히 心包絡으로 봄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趙獻可⁴⁹⁾는 兩腎間 一寸五분에 위치한 小心이 곧 命門이며 人身의 主宰者인 眞君眞主가 되어 小心은 水火之氣를 내포한 생명활동의 原動力으로 人身의 主는 心이 아니고 命門임을 강조하였다. 清代 徐靈胎, 何夢瑤도 『內經』에서 언급한 小心을 命門元氣로 인식하여 趙獻可와 동일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劉河間과 吳崑이 小心을 右腎相火의 작용으로 관찰한 반면, 趙獻可徐靈胎, 何夢瑤 등은 생명의 根本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劉河間이 小心을 命門이라 한후, 明.清代의 醫家들이 「七節之旁 中有小心」의 小心은 命門을 말한 것이라 하여 이미 『內經』에서 命門이 小心으로 언급되었음을 論하였

46) 素問玄機原府式, 「命門者 小心也……右腎命門小心 乃手厥陰相火包絡之源……故與手少陽三焦合爲表裏 神脈同出 見手右尺也 二經俱是相火 相行君命 故曰 命門筋 故〈仙經〉曰 心爲君火 腎爲相火 是言右腎屬火不屬水也」

47) 內經素問吳注, p.206.

48) 醫貫, p.4. 「兩腎俱屬水 但一邊屬陰 一邊屬陽 越人謂左爲腎 右爲命門 非也 命門即在兩腎各一寸五分之間 當一身之中 〈易〉所謂一陽陷于二陰之中 〈內經〉曰 ‘七節之旁有小心’ 是也 名曰命門 是謂眞君眞主 乃一身之太極 無形可見 兩腎之中 是其安宅也」

다. 그러나 『甲乙經』⁴⁹⁾ 『太素』⁵⁰⁾에서는 小心이 腎의 神인 志心으로 言及되었으며 王冰이 「小心 謂真心神靈之宮室也」라 하였고, 孫一圭⁵¹⁾와 馬蒔는 小心은 心包絡을 말한다 하였고, 高士宗⁵²⁾은 心氣가 七椎下 膈俞穴로 나음을 말한 것이라 하여 견해의 차이를 알 수 있다.

(2) 小心의 해석

『內經』에서 언급한 小心은 七節의 해석 여하에 따라 心 및 腎과 관련하여 두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즉 脊椎를 위에서 아래로 세면 小心은 心君을 代行하는 「真心神靈之宮室」의 心包絡으로 볼 수 있으며, 아래에서 위로 세면 兩腎中間에 위치한 一點眞陽으로 生身の 根蒂가 되는 命門으로 이해 할 수 있다.

2) 命門과 腎

命門과 腎의 문제는 『難經』에서 비롯 兩腎中 右腎을 命門이라 하였으나 左右의 水火陰陽을 論하지 않았으며, 腎陰과 腎陽에 대하여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의서^{53,54)}에서 命門의 水火는 腎中 陰陽의 中庸성을 강조한 것이라 하여 命門과 腎을 동일한 개념으로 命門과 腎은 함께 精神所舍 元氣所系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難經』의 命門氣와 腎氣는 서로 통한다는 이론을 誤認한 데서 起因한 것으로 命門의 生殖·生化作用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脈經』에서 左尺은 腎中の 眞陰을 主하고

右尺은 腎의 眞陽을 主하며 命門은 陽氣之根이 된다하여 命門과 腎陽의 관계가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劉河間이 「右腎屬火不屬水」라 하여 命門을 右腎相火의 개념⁵⁵⁾으로 설명한 것이 命門과 腎陽(腎氣)의 문제를 야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劉河間의 金元代 醫家は 역시 右腎을 命門相火라 하였으나, 그 작용에 있어서 相火는 元氣之火로 五臟機能活動의 원동력이 된다 하여 腎陽의 개념보다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 孫一圭도 右腎을 水에 歸屬시켜 右腎 命門火의 說을 부인 하였고, 劉의 「右腎屬火」의 說은 左腎屬水와 水火相配로 兩腎의 상대성을 左水右火로 표시한 것으로 命門은 水도 火도 아니며 腎間動氣라 하였다.

趙獻可와 徐靈胎는 兩腎이 모두 水에 屬하나 한쪽은 陰水, 한쪽은 陽水에 屬한다 하여 越人이 말한 「右腎命門說」을 부정하고 命門은 一陽이 二陰中에 陷入한 水中之火로 眞水와 眞火之宅이 된다 하였다.⁵⁷⁾ 이상에서 腎中の 水火는 腎陰과 腎陽을 말한 것으로 이는 難經의 左腎右命門說에 의한 左水右火, 左血右氣의 이론으로 부터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腎은 원래 水臟이나 兩腎의 상대성을 水火로 구분한 것일 뿐이다. 右腎을 命門이라 한 것은 右腎火(陽水)와 命門火(元陽)의 작용을 혼돈한 결과이며, 命門은 元陰과 元陽을 포괄하는 生化之原으로 臟腑기능활

49) 針灸甲乙經校釋 上冊, p.693.

50) 黃帝內經太素, p.253. 「七節之旁 中有志心」

51) 中醫各家學說, p.163.

52) 黃帝素問直解, p.363.

53) 藏象學, p.31.

54) 中醫基礎理論, p.54.

55) 中醫藏象學, pp.143~144.

56) 歷代中醫學家評析, p.60.

57) 徐靈胎醫書全集 p.163

동의 근원이 되므로 腎과 命門을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한편 命門과 腎이 모두 臟腑의 根本이 되나, 腎의 水火는 臟腑生理에 있어서 先天之本으로 그 중용성을 臟腑 陰液의 근원이 되는 腎陰과 臟腑 陽氣의 근원이 되는 腎陽으로 구분한 것이며, 命門의 水火는 腎陽과 腎陰을 化生하는 先天之氣가 된다. 命門으로부터 化生된 腎陰과 腎陽은 脾胃 後天之本の 滋養을 받고, 君主之官인 心의 조절하에 장부생리활동이 유지된다 하겠다. 따라서 장부생리에 있어서 腎은 先天之本이요, 脾胃는 後天之本이며 心은 五臟六腑之大主라 한다. 그러나 이는 형체가 형성된 이후의 臟腑生理이며, 형체 생성이전 生命의 근원은 命門의 작용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즉 命門은 先天水火의 작용이며, 腎은 後天水火의 작용으로 腎陰과 腎陽은 水火의 相濟相養을 말한 것이다.

3) 命門과 心包·三焦

劉河間은 命門이 手厥陰包絡의 臟으로 手少陽三焦와 表裏로 二經 모두 相火를 主한다⁵⁸⁾하여 命門과 心包絡, 三焦와의 상관성을 相火로 설명하였으며, 張元素는 心包가 命門으로 相火의 原이며 三焦는 相火의 用으로 命門의 元氣를 분포한다⁵⁹⁾하여 命門과 三焦의 관계를 相火의 體와 用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두 의가는 命門이 곧 心包라 하여 命門相火와 包絡相火를 동일시 하였다.

이와같이 命門과 心包, 三焦는 모두 相火를 주관하여 이들의 이해에 난해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命門을 心包로 인식하고 三焦와 표리로 논한 문제는 命門의 相火와 心包的 相火를 혼용한데서 온 결과라 사료되며, 命門相火는 元氣之火로 生化之原의 개념이며 包絡相火는 心의 外衛로 君命을 代行하여 君火의 작용을 輔弼하는 것이라 하겠다.⁶⁰⁾

한편 命門과 三焦의 관계는 有名而無形의 臟과 腑로 命門은 相火의 體로 氣化의 動力이 되고 三焦는 相火의 用으로 氣化循行의 通路가 되어 五臟六腑를 總司한다.⁶¹⁾ 즉 命門의 身體代謝에 대한 조절작용은 原氣之別使인 三焦를 통하여 呼吸, 循環, 消化, 吸收, 排泄, 上主納, 中主化, 下主出의 氣化作用이 발현되어 五臟, 六腑, 營衛, 經絡, 內外, 上下, 左右之氣등을 조절한다.⁶²⁾ 그러므로 『難經』에서 三焦는 「主持諸氣」⁶³⁾라 하였다.

5. 命門의 別稱

『內經』에서 命門은 睛明穴로 눈을 지칭하였고 難經에서는 右腎을 命門으로 言及한 후, 『脈經』⁶⁴⁾에서는 右腎을 子戶로, 劉完素등^{65,66,67)}은 命門을 小心으로, 李東垣은 右腎命門을

58) 素問玄機原病式, p.165.

59) 歷代中醫學家評析, p.75.

60) 血證論, p.8.

61) 中醫歷代醫論選, p.153.

62) 中藏經, p.39.

63) 難經.34難, 「謂三焦也 有原氣之別焉 主持諸氣 有名而無形焉」

64) 脈經校注, p.12. 「左屬腎 右爲子戶 名曰三焦」

65) 劉河間, 素問玄機原病式, p.165.

66) 吳崑, 內經素問吳注, p.206.

67) 醫貫, p.4.

68) 醫編, p.6.

赤宮, 丹田, 胞라 別稱하였다.

道家는 先天眞一의 氣를 藏하는 丹田으로 인식하였고 冲任脈이 이곳에 盛하면 月事以時下하는 고로 血室이라고도 하였다.

趙獻可⁶⁹⁾는 命門小心을 一身의 中心이 되는 黃庭이라 하였고, 張介賓⁷⁰⁾은 睛明穴사이의 鼻部 山根處가 腦心으로 命門에 屬한다 하였다.

蔡陸仙⁷¹⁾은 命門이 男子에 있어서는 精室(精囊), 女子에 있어서는 血室(子宮)을 말한다 하여 生殖器로 이해하였다.

이상에서 右腎과 관련하여 命門을 子戶 精室 血室 赤宮 胞등의 별칭은 命門의 생식 작용을 강조하여 말한 것으로 볼수 있고, 小心 黃庭 元氣등의 명칭은 命門이 一身의 중심으로 생명활동의 元點을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사려된다.

6. 命門의 臨床應用

命門은 生命의 門으로 元陰(水)과 元陽(火)의 작용으로 관찰되며 임상응용도 이 先天水火의 작용에 근거한다. 이 元陰과 元陽은 生命의 근본으로 五臟의 陰陽之氣는 반드시 元陰과 元陽의 부단한 資助에 의지하며 命門은 元氣의 根本이 되고 元氣는 臟腑의 根本이 되며 臟腑는 어떤 形體의 根本이 되는 고로 命門元氣의 存亡盛衰는 人體 生死存亡의 關鍵이 된다. 즉 元氣는 生氣의 內充이고 神氣는 生氣의 外見으로 生氣는 臟腑,

顏色, 脈息, 七竅, 二便등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元氣의 상태는 外的神氣의 반영으로 관찰 할 수 있다.⁷²⁾

治法에 있어서 일부 의서^{73,74)}에서는 臨床 辨證에 있어서 腎陽虛弱과 命門火衰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命門의 治法은 溫補腎陽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王冰이 「寒之不寒 責其無水 熱之不熱 責其無火 無火無水 皆在命門」⁷⁵⁾이라 하여 命門水火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으며 이를 계승하여 張景岳은 病理과 치료에 있어서 火가 有餘한 것은 眞水의 부족으로 水를 補하고, 火의 不足은 眞水가 有餘한 것으로 水를 瀉하여서는 않되며 火를 補해야 된다⁷⁶⁾는 水火相濟를 중시하였다.

命門相火의 기능은 ‘陽’, ‘火’와 관련하여 腎陽을 포함하는 元氣의 根本이며 인체 熱生産의 發源地로 三焦의 氣化를 돕고, 脾胃를 溫暖케 하여 飲食의 소화작용을 돕는다. 또한 인체의 성기능 및 생식계통과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호흡계통과 納氣작용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이로볼때 命門의 概念은 인체 全身의 機能性活動으로 관찰되며 각 장부, 조직기관활동의 「原動力」이 되므로 命門動氣의 足과 不足은 健康의 與否와 관계가 있다. 이러한 命門學說을 근거로 溫陽補火의 치료법과 助陽藥劑는 命門火의 不足으로 인한 기능감퇴성 질병에 현저한 치료 효과가 있다.

77)

69) 醫貫, p.4.

70) 類經圖翼, p.436. 「睛明所夾之處 是謂腦心 乃至命之處 故曰命門」

71) 中國醫藥匯海 9卷, pp.138~139.

72) 中醫各家學說, pp.257~258.

73) 臟象概說, p.52.

74) 實用中醫基礎學, p.91.

75) 歷代中醫學家評析, p.60.

76) 類經圖翼, p.446.

77) 臟象概說, p.52.

治病은 반드시 그 根本에서 求하여야 하므로 新病과 久病을 구분하여 치료의 원칙을 세운다. 즉 發病의 始初에는 先天水火에 미치지 못하고 먼저 後天氣血을 손상시키므로 寒藥으로 熱病을 治하고 熱藥으로 寒病을 治한다.⁷⁸⁾

命門相火는 元氣之火로 생명활동의 추동력이 되나 過旺하면 妄動하여 眞陰을 손상시키는 邪火로 ‘元氣之賊’이 된다. 이때의 相火는 병리적인 相火로 陰虛火旺이라 칭하며 眞陰을 補하여 邪火를 瀉하는 治法 즉 滋陰瀉火한다. 이처럼 命門의 眞陰不足으로 陽勝하는데는 壯水之劑의 대표적인 方劑인 左歸飲, 左歸丸등을 加減하여 응용한다. 또한 命門火衰로 陰勝에는 益火之劑 즉 辛溫之劑나 甘熱助陽하는 治法으로 眞陽을 補하는데 右歸陰, 右歸丸등을 응용한다.⁷⁹⁾

그러나 李東垣등^{80,81,82,83)}은 腎陰과 腎陽을 命門의 水火와 동일시하여 先天의 眞陰과 眞陽을 補하는데 六味丸과 八味丸을 立方하였으나 六味丸은 後天의 腎陰不足을 補하고, 八味丸은 腎陽虛를 補하기 위하여 創方된 것⁸⁴⁾이며 命門火는 元氣로 益火之劑는 右歸飲을, 命門水는 元精으로 壯水之劑인 左歸飲을 기준으로 隨證加減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

III. 總 括

역대 醫家들은 생명활동의 主宰者를 ‘非正臟’인 命門으로 想定하여 이의 인식과정에

있어 시대와 의가에 따라 여러 설이 紛紛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命門이라는 말의 기록은 일찌기 『內經』에서 볼 수 있으나 「命門者 目也」라 하여 지금의 命門學說과는 전혀 다르며, 命門學說은 『難經』에서 右腎을 命門이라 論述한 이후 後世 醫家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또한 많은 論爭을 야기시켰으며, 역대 醫家들은 命門을 생명활동의 主宰者인 先天의 水火之氣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命門은 生命의 源으로 身體全般의 代謝作用에 있어서 壽命, 精神機能은 물론 五臟六腑의 기능활동을 통제 조절함으로써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생명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하나의 原點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命門의 부위에 관한 醫家들의 論述은 『難經』의 右腎說로 부터 시작하여 兩腎說, 兩腎之間說로 구분되며, 『難經』에서 論한 左腎 右命門은 命門을 火에 配屬시켜 ‘左水右火’ 즉, 左腎屬水 右腎屬火의 이론으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兩腎은 水의 臟으로 藏精하므로 左右水火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命門은 兩腎間에 위치하는 人體의 黃庭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 작용은 難經에서 언급된 神精所舍 原氣所繫 藏精 繫胞 呼吸등의 기능에 근거하여 발전 해석되어 왔다. 즉 命門의 작용은 一點 眞氣를 內包한 生化之原으로 臟腑經絡의 기능발휘, 水穀의 運化, 氣血, 津液의 輸布와 轉化등 생명활동의 根源이 된다. 생명활동의

78) 醫編, pp.6~7.

79) 類經圖翼, pp.447~452.

80) 金元醫學, p.26.

81) 醫編, p.6.

82) 中醫各家學說, p.176.

83) 中醫歷代各家學說, p.155.

84) 簡明方劑辭典, p.31, 238.

根源으로서 命門은 水(眞陰)와 火(眞陽)의 작용으로 표현되는데, 命門火는 陽中有陰하여 火가 爲主가 되고 命門水는 陰中有陽하여 精이 主가 된다.

命門火는 元氣로 인체의 元陽이 되어 機體를 溫暖케 하고, 腠理肌膚를 充實케 하며 五臟六腑의 氣化기능을 추동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⁸⁵⁾ 命門水는 생명의 가장 기초적인 물질인 精 즉 眞陰으로 眞陰은 능히 化氣하고 氣는 陽이므로 命門중에는 水火가 존재한다. 故로 眞陰과 眞陽之氣가 生命을 發生 하여 형성시키는 根源이 되며 眞陰과 眞陽은 命門의 水火이므로 命門을 '水火之府' 或은 '陰陽之宅'이라 하였다.

火의 개념은 人이 生하고 生命을 持續할 수 있는 動氣로, 火는 陽의 體가 되고 造化는 陽이 生의 根이되는 故로 人身 역시 火가 生命의 門이 된다. 命門을 生命의 本으로 칭하는 것은 그 中에 火가 存在하기 때문이며 이 火는 全身의 生命活動과 生理機能이 관련된 本이다. 命門火가 强하면 生機(生命活動)가 왕성하고, 火가 衰하면 生機가 弱해지고, 火가 滅하면 生機가 마침내 정지한다. 따라서 命門君主之火는 命門水와 상호 의존하여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한편 命門火를 相火라한 것은 인체의 정상기능을 대표하는 元氣之火의 개념으로 水가 生하는 先天의 범주에 屬하며 包絡相火는 心의 君火를 대항하는 火의 개념으로 水가 克하는 後天의 범주에 屬한다 하겠다.

命門은 先天水火의 一點으로 이로부터 後天이 생하여 생명활동이 영위된다. 그러므로 肝 心 脾 肺 腎은 모두 後天有形之物로 臟

腑生理面에서 腎을 先天의 本, 脾胃를 後天의 本이라 하는 것은 後天有形을 말한 것으로 이 臟腑後天의 根源은 命門이고, 命門이 先天의 本이라 함은 先天無形의 水火작용을 말한다.⁸⁶⁾ 이에 李時珍은 命門은 藏精系胞之物로 아래로는 腎과 通하고 위로는 心 肺 및 腦와 貫通하여 生命의 源이며 相火를 주관하고 精氣의 府가 되어 生命이 이로부터 나온다 하였다.⁸⁷⁾ 따라서 命門의 元陰과 元陽은 先天之氣로 腎의 水火를 대표하는 腎精과 腎氣로 볼 수 없으며, 命門을 腎과 동일시하여 腎氣(腎陽)의 概念으로 보는 것은 命門의 생리작용중 藏精系胞의 生殖機能을 腎의 기능과 연관시킨 결과이며 그 기능이 腎과 相通한다⁸⁸⁾는 관점을 말한 것으로 命門火의 작용만을 관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命門水火는 인체 생명활동의 두세력으로서 陽化氣 陰成形의 대사-항상성을 조절하는 眞主라 하겠다. 한편 先天水火의 작용을 설명함에 命門火를 先天의 元陽, 腎水를 先天의 元陰이라 하여 命門火와 腎水를 生命의 根本으로 본 것은 命門의 先天無形의 水火작용중 火의 작용 一面만을 이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동의학에서 음양은 인체의 생리, 병리, 진단, 치료 및 자연계의 모든 생성소멸을 파악분석하는 기본원리며 命門은 체내의 陰陽水火의 宅으로 인체의 모든변화를 주관하는 原點으로서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하겠다.

다시말하면 옛 醫家들은 命門을 人身의 生化之源으로 想定하였으나 有名而無形의 '非正臟'으로 그 생리작용을 중심으로 관찰한 機能爲主의 장기개념이며,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부위와 實體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85) 臟象概說, p.51.

86) 醫貫, p.5. 「蓋心脾腎肝肺 皆後天有形之物也 須有無形之火 配無形之水」

87) 中國醫學史, pp.241~242.

88) 難經 39難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IV. 結 論

命門의 개념과 그 임상응용을 諸家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검토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命門은 有名而無形으로 생명활동의 중심이 되는 元點을 想定한 것으로 生化之源을 意味하며 先天의 水火之氣 즉 眞陰과 眞陽을 내포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命門의 생리작용은 後天의 氣血을 化生하여 인체의 생명활동을 영위하며 元氣의 別使인 三焦를 통하여 全身의 생리활동을 조절한다.

3. 命門의 부위설정은 人身의 중심점으로 兩腎사이의 一寸五分에 위치하는 '黃庭'의 개념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리라 본다.

4. 命門의 임상응용은 元陰과 元陽의 생리, 병리에 근거하여 左歸飲과 右歸飲을 기준하여 隨證加減함이 有效하리라 본다.

5. 命門을 火와 관련하여 命門相火라 함은 元氣之火로 생명활동의 原動力을 意味하며 君火를 代行하는 包絡相火의 개념과는 相異하다.

6. 命門의 實質을 腎과 관련하여 설명한 것은 命門의 生殖·生化作用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命門에 대한 이해와 실험적 연구는 命門의 一面만을 관찰한 腎機能系, 내분비 或은 免疫의 어느 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들 기능을 포괄하는 생명활동의 元點으로서 인체 전반의 생리활동을 통제 조절하는 廣의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參 考 文 獻

1. 張隱庵.馬元臺, 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75.
2. 張隱庵.馬元臺, 黃帝內經靈樞, 서울, 成輔社, 1975.
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4. 吳崑, 內經素問吳注, 山東,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4.
5. 洪元植編,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6. 申興默, 命門動氣의 生理作用에 對한 實驗的 研究, 東國大學教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1.
7. 金榮睦等, 右歸飲이 Hydrocortisone 投與로 誘發된 家兔副腎皮質機能低下에 미치는 影響, 東醫病理學會誌, 1989.
8. 李鎔泰, 命門 三焦에 대한 實驗的 研究, 東醫生理學會誌, 1989, 4(1).
9.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3.
10. 滑壽, 難經本義, 台北, 旋風出版社, 中華民國六十九年.
11. 孫一圭, 赤水玄珠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2. 山東中醫學院校釋, 針灸甲乙經校釋 上冊, 人民衛生出版社, P.693.
13. 沈炎南,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4. 張介賓, 景岳全書 上券, 서울, 大星文化社, 1988.
15. 張介賓, 類經圖翼,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16. 唐容川, 血證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7.

17. 劉完素, 素問玄機原病式(注釋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18. 李時珍,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0.
19. 李挺, 原本編註醫學入門 上册, 서울, 南山堂, 1985.
20. 趙獻可, 醫貫,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21.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22. 李中梓, 醫宗必讀,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中華民國六十六年.
23. 華佗, 中藏經(影印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24.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台北, 五洲出版社, 中華民國七十年.
25. 陳士鐸, 石室秘錄,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1.
26. 蔡陸仙, 中國醫藥匯海 9券, 서울, 成輔社
27. 盛增秀, 王琦, 臟象概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28. 錢承輝等, 中醫臟象學,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29. 張六通等, 中醫臟象學, 湖北,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8.
30. 雲南中醫學院主編, 臟象學,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88.
31. 劉燕池, 中醫學基礎概論(第一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6.
32. 李德新, 實用中醫基礎學, 沈陽, 寧科學技術出版社, 1985.
33. 遼寧中醫學院等, 中醫基礎理論, 沈陽, 寧科學技術出版社, 1986.
34. 王新華, 中醫歷代醫論選, 江蘇科學出版社, 1980.
35. 丁光迪, 金元醫學, 江蘇科學出版社, 1987.
36. 裘沛然, 中醫歷代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37. 北京中醫學院, 中醫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出版社, 1979.
38. 姜春華, 歷代中醫學家評析,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39. 錢一桂, 醫略,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5.
40. 江克明等編, 簡明方劑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41. 姜春華等, 腎的研究,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42. 李炳如, 補腎藥對下丘腦-垂體-性腺軸功能影響, 中醫雜誌, 1984, 25(7)
43. 沈自尹, 「腎陽虛」證的下丘腦-垂體-甲狀腺軸初步觀察, 上海中醫藥雜誌, 1982, (2)
44. 沈自尹等, 補腎藥改善老年腎上腺皮質功能的臨床與實驗研究, 中西醫結合雜誌, 1989, 9(9)
45. 陳家倫等, 助陽中藥對正常雄性大鼠腎上腺皮質寧丸及甲狀腺激素濃度的影響, 中西醫結合雜誌, 1989, 9(12)
46. 陳名道等, 助陽中藥對正常雄性大鼠甲狀腺激素代謝的影響及進退法用藥的探索, 中西醫結合雜誌, 1989, 9(2)